

경북교육
WEBZINE

온방울

2024년 봄호
Vol.05

질문, 배움의 깊이를 더하다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Part1. 기획글	질문이 자연스러운 교실에 대하여 김지연(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05
	우리는 모두 질문의 아이들입니다 김철원(서신중학교 교장)	· 11
Part2. 교육현장	질문이 넘치는 교실 이윤성(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학사)	· 21
	질문이 수업이 되려면 필요한 3가지 남지영(상운초등학교 교사)	· 27
	생각을 다지는 수업, 아하! 궁리 홍현정(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학사)	· 35
	질문하는 힘! 탐구하는 자세! 박지은(북삼고등학교 수석교사)	· 45

온방을 이란?

경북교육청에서 분기마다 발간하는 교육 관련 주제 잡지로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하는 방울들이 모여 새로움을 이뤄낸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전체를 이루듯
경북교육의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를 모아 따뜻한 경북교육을 이루겠습니다.

Part3. 함께하는 현장	가족 질문왕을 찾아라! 안재용(호서남초등학교 4학년)	· 59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질문·탐구 대축제 박명진(경산고등학교 3학년)	· 63

Part.1

기획글

질문이 자연스러운 교실에 대하여 · 05
김지연(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우리는 모두 질문의 아이들입니다 · 11
김철원(서신중학교 교장)

● 질문이 자연스러운 교실에 대하여

김지연(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I.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내가 무언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질문할 대상을 찾아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질문이란 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질문이 없다는 이야기는 궁금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곧 알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것이 없는 삶, 어느 것도 궁금한 것이 없는 교실, ‘질문이 없는 교실’이라는 것은 그 안의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이 없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질문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경우.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I. 알고 싶은 것이 없는 교실

인간의 사회는 선대의 지식을 후대가 계승해 나가며 진보, 발전해 왔습니다. 문자가 발달하면서는 이것이 책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이 계승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바로 인간 대 인간입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와 제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스승과 제자의 방식으로 인간의 축적된 지혜는 면면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아마도 '질문'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은 수사적 질문, 즉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하는 주요 기능은 진단과 확인, 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학생 질문의 마중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앎을 깨우쳐 왔습니다. 아마도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하나하나 앎의 징검다리를 놓아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보다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아는 바를 길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 멈춰 다음 단계로 이어주는 질문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의 더 중요한 목적은 결국 교사의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질문을 만들어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학생 질문이 가득한 교실이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존재임과 동시에, 학생들이 더 알고 싶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사의 질문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호기심은 인간이 갖는 고유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하는 힘은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더 똑똑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능력이 지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교실은 결국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실이 됩니다. 물론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그 이상의 지식을 알고 싶어지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삶은 학교 밖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더 긴 미래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앎의 동기는 자연스레 독서와도 이어지게 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책을 읽지 않는 우리들'에 대한 문제 역시 근원을 따져보면 질문 없는 교실의 문제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II. 알아 낼 수가 없는 교실

학생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알아내기 힘든 교실이 되어도 '질문 없는 교실'이 되어버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면, 이것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이죠. 과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말의 끝에 물음표를 붙인다고 해서 좋은 질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누군가에게 “좀 알아듣게 질문을 해봐, 그래서 네가 알고 싶은 게 뭐야?”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질문을 잘 하려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를 정확히 찾아내어 그에게 정확한 내용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질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관찰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능력’ 즉 메타인지라고도 합니다.

교실 분위기가 질문에 친화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실 내 구성원들의 성향이 질문에 인색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강의 위주의 수업에 길들여져 버린 교사, 누군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낯설게 대하는 동료 학생들의 분위기, 많은 양을 단시간에 나가야 하는 부담스러운 진도, 지나치게 이질적인 학생들의 학습 수준 및 동기 등 질문과 친하지 않은 교실의 원인은 상황에 따라 다채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 교사 한 명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인의 경종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보다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고 보다 질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등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

습니다. 무엇보다 질문하는 학생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질문의 전략, 질문을 활용한 수업 기법 및 모델 등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분명 질문하는 교실은 더 가까워지리라 기대합니다.

IV. 나가며

얼마 전, 지인의 집에 방문을 해서 함께 저녁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매우 귀엽고 개구진 친구였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도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그 친구에게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모임 그 시간 내내 쉬지 않고 부모에게 질문을 해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저건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하늘은 왜 파래요?”, “저 나무는 왜 저기 심었어요?” 등 함께 이동하는 중간에도 내내 아이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몇 개를 대답해주었습니다만, 대답이 막히는 질문도 꽤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궁금하지 않은 지금의 나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이 닳아버린 걸까 하는 반성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신기했던 것은 이를 꼬박꼬박 대답해주는 그 소년의 부모, 즉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하늘이 왜 푸른색인지를 꼬마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 설명해 주는 순간은 이날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 나는 알고 있으니 그 질문에 대

답을 해줄 거야, 라는 정말 당연한 분위기가 그 가족들에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위적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새삼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소년의 많은 질문이 다소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색한 건 저 혼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교단에 서는 저를 되돌아보면서 어쩌면 나 역시도 학생들의 질문에 허용적인 사람인지, 이런 분위기를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인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질문이 가득한 학교, 교실의 분위기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 우리는 모두 질문의 아이들입니다.

김철원(서신중학교 교장)

I . 관계와 상호작용

제 눈물을 가장 많이 보여드린 선생님께

선생님, 늘 울고 싶을 때 핑계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어디서 핑계를 찾아야 할까요. 아직도 고2 때 교장실에 들어서 자마자 눈물을 쏟던 그날이 잊혀지지 않아요. 교장실로 가는 내내 울음을 참았는데 선생님을 보니 애석하게도 눈물이 터졌어요.

울음을 그치기 전까지 왜 우냐고 묻지 않으셨던 것이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저 걷다 마주치면 절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말을 띠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아 감사했어요. 시창작 시간을 진심만 가득한 공기로 채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선생님 눈에는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있어요. 그 진실된 눈으로 저에게 작은 생명 하나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학교

를 졸업하고 그 많은 생명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에서 만난 좋은 인연과의 배움을 밑바탕에 두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게요. 저 혼자 약속하면 지키기 어려워 질까봐 이렇게 선생님과 약속해 두고 갈게요.

- 2021. 1. 27 잠들지 않은 제자 올림

졸업에 즈음해 학생이 보내준 편지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차마 말을 보태기가 부끄럽지만, 별을 헤아리듯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봄날의 꽃처럼 많다.

편지의 첫머리에서 학생은 교사를 자신의 눈물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호명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다. 학생은 교사에게 눈물을 쏟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핑계’가 되어주었던 당신과 헤어지면서 이제 어디에서 그런 관계를 찾아야 하는지 슬프게 묻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울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무수한 삶의 질문과 문제,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많은 호기심과 생각, 혼란과 모순을 ‘들어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신 안에 있던 복잡하고 모호한 무엇인가를 밖으로 꺼내 어놓을 수 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고유함은 세상의 특별함이 된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교육의 꿈, 좋은 정책, 새로운 활동, 배

움과 성장은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만 환하게 꽂피울 수 있다.

편지에서 학생은 교사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고백하고는 학교에서 만났던 모든 ‘좋은 인연과의 배움’으로 그 관계를 확장한다. 이 관계들은 ‘많은 생명을 구조하는 일을 하려는’ 학생의 결심과 진로에 특별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학생은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자신의 결심을 혼자만의 다짐이 아니라 교사와의 약속으로 단단히 만들어둔다. 학생은 이 굳건한 신뢰와 우정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주체적 이면서 관계적이고 독립하되 연결되어있는 삶이다.

하여, 시인 진은영은 이렇게 말했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그 언어만 있다는 건 그들이 느끼는 구체적 고통을 말할 수 있는 다른 관계나 공동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어가 있으려면 그 단어를 들려줄 대상이 있어야 한다. 청자를 갖지 않는 단어는 죽은 단어다. 그러니까 단어를 들려주자는 건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의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다른 시간과 장소를 아이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돋자는 뜻이다.

- 진은영, <시사인 2022.10.04.>

말할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 학교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관계인가? 우리는 질문과 대답, 고백과 대화가 가능한 안전한 관계인가? 침묵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인가? 서로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은지 헤아려보자. 질문하는 학교는 관계에서 출발한다.

II. 배움에 대한 배움

그래서 시 창작 수업의 처음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떨림, 또 영광 스러움과 함께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낄 공간이 주어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조금씩의 삶을 서로 머금고 써낼 기회가 있기를 조그맣게 기대해요. 자상한 봄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2 학생의 편지

수업의 첫 시간을 준비하는 학생은 이 수업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떨림'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이 수업을 통해 학생이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글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관심과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첫 수업 앞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어떤 떨림을 느끼고 있다. 교사는 아직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무엇인가를 배웠다.

질문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출발점은 배움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배움을 성찰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를 헤아려보며 배움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하고 기대와 소망을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배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배움의 불꽃들을 헤아려보고 말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배움의 분위기를 만들고 배울 준비를 하는 일이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들은 배움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질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III. 질문의 경험

시 창작 수업의 첫 시간, 칠판에 적혀있던 글이 생각납니다. '문학은 삶을 구할 수 있을까' 졸업이 다가온 지금, 제3년을 돌아보며 이 글에 대답해 보자면, 저는 문학이 제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저를 구해주는 밧줄의 역할이 아니라, 얼른 계단을 만들어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게 참 많은 힘을 주신 선생님께 늘 마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 고3 학생의 편지

학생은 시 창작 수업 첫 시간, 교사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고 있다. 이 질

문은 학생에게 하나의 화두가 되었고 학생은 이 질문에 자기 나름의 답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분투한다. 서둘러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천천히 좋은 질문을 찾는 것에 애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질문은 그 자체로 우리를 깊이있는 탐구의 여정으로 이끈다.

그 탐구의 끝에서 학생은 결국 자기만의 결론을 찾게 되었다. '문학은 삶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은 문학이 자신의 삶을 구해준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한다. 학생에게 문학의 역할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영웅처럼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학은 학생에게 자신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힘, 즉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끝내 자신을 구하는 힘을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일시적이고 당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래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과 몸에 남는 배움의 원체힘이 되려면 그것이 일상에 있어야 한다. 질문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질문의 경험이다.

IV. 질문의 힘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기다움과 나다움의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기다움이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이해하고 더 좋아하고 더 잘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불안과 슬픔을 다루어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사유하고 거기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그에 적합

하고 적절한 역량을 갖추려 노력하는 것이다. 행복의 기준이 타인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기만의 적정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자기다움, 고유성, 개개인성의 역량을 가지려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는 주체성, 주도성의 경험이 중요하다. 주체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미래의 삶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행위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다. 질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 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셈이다. 학생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질문은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다.

모든 학생들은 고유하고 개별적이며 대체불가능하다.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이다. 학생들에게 종이를 주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가졌던 질문의 목록을 적어보게 하자. 그 질문들 속에 바로 그 사람이 있다.

또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학생들로 하여금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뛰어들게 한다.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질문이 가진 힘이다. 문제해결의 과정

은 그 자체로 깊이 있는 탐구의 과정이 된다. 이제, 학생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고 자료를 찾으며 인터뷰를 하고 탐방을 간다. 실험과 실습에 참여하며 때로 토론하고 글쓰기도 한다.

계획했던 것에 실패하기도 하고 결론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도 있다. 모두 배움의 과정이다. 질문은 우리를 깊고 넓은 배움의 세계로 이끈다.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도 기꺼이 학생들은 그 세계에 뛰어들 마음이 있다. 누구도 아닌 오직 바로 자신의 질문이므로.

이제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답을 찾지 못한 미완의 결론이더라도 끝을 맺는다. 그동안 자신의 활동을 '언어화'하고, 자신의 질문과 탐구의 과정을 '성찰'한다. 그리고 마지막 '공유'의 과정에서 타인의 피드백과 쉐어링, 평가와 조언을 통해 이윽고 자신 안에 있던 고유성이 세상 밖으로 나와 특별함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실패와 성장이 아로새겨진 자신만의 서사,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이야기의 탄생이다.

질문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 우린 본래 모두 질문의 아이들이었으니까.

V. 질문의 목록

고등학교 때다. 교실에서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읽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시집을 찢어버리고는 내 얼굴에 던지면서 욕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찬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친구가 가고 나서 너덜너덜해진 시집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고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져와서는 가지런히 펼쳐놓고 밤새 풀칠을 해 붙였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학교에 가져가서 시를 읽었다. 두려움이 많았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린 시절과 십 대를 떠올려 보면 나는 나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언제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 질문했던 것 같다. 찢어진 시집을 몰래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던 그날 밤, 나는 "무너지고 부서진 심장을 가지고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이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나의 질문이다.

우리는 어쩌면 서둘러 정답을 찾기보다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자신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럴 때, 질문은 학습을 넘어 삶의 동기가 된다. 질문하고 찾아가고 바라고 움직이는 삶, 희망이 거기에 있고 사랑도 거기에 있다.

Part.2**교육현장****질문이 넘치는 교실 · 21**

이윤성(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학사)

질문이 수업이 되려면 필요한 3가지 · 27

남지영(상운초등학교 교사)

생각을 다지는 수업, 아하! 궁리 · 35

홍현정(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학사)

질문하는 힘! 탐구하는 자세 · 45

박지은(북삼고등학교 수석교사)

**질문에서 출발하여 개념에 이르는 경북형 교실 수업!
질문이 넘치는 교실**

이윤성(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학사)

I. 왜『질문이 넘치는 교실』인가?

생성형 AI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혁신이 대두되었다. 미래 핵심역량(6Cs*)을 키워주는 교육의 전환을 위해 학교 교실 수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였다. AI 시대 문제해결 역량 함양을 위해 삶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답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잘해야 한다. 또한 AI가 답을 찾아주는 시대에 돌입한 우리는 질문하는 능력이 답하는 능력만큼 중요하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통해 학생의 삶과 연계된 질문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실, 즉 교실수업혁신을 하고자 한다.

*인성(Character), 창의성(Creativity),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 역량(Convergence),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II. 질문으로 설레고 배우며 성장하는『질문이 넘치는 교실』

1.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

학교 문화 조성	학생들의 자발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문화 조성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학생 질문 기반 수업과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및 학부모 연수·홍보 실시
연구활동 지원	질문 기반 수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지원 및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반화 방안 모색

『질문이 넘치는 교실』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의미한다. 질문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질문하는 방법과 시공간의 다양화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학습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수업 혁신 방안 및 적용 사례 연구·일반화 추진을 위해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 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2. 학생 질문 능력 신장

질문하는 방법	학생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는 질문 만들기 및 질문하는 방법 프로그램, 디지털 질문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질문 공책, 질문 워크북 활용	질문 공책 및 질문 워크북을 활용하여 교과와 생활 속에서 질문 방법을 익히고 배우기 위한 질문능력 향상

교사는 학년별 학생 발달 단계 및 수준에 맞게 질문을 쉽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질문하는 방법 배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학기 초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질문 만나기', '질문과 친해지기', '질문으로 사람 알기', '질문 땅따먹기' 등 창의적 질문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질문 생성기



질문 수준 확인 생성기

또한, 생성형 AI,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 학생들의 질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질문 생성 프로그램과 생성 질문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 질문 생성 능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이 쉽게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질문유형을 기반으로 '질문 공책', '질문 워크북'을 초등학교에 배부하였다. '질문 공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와 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답을 쓸 수 있는 빈 줄 공책이다. '질문 워크북'은 초등학교 5, 6학년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 단원별 1~3차시의 질문 기반 수업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질문 생성 능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3. 학생 질문 기반 수업 실천

질문 기반 교과수업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 주도형 수업 상시 운영
질문 기반 학생 생활과정 및 프로젝트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 실천을 확대하고자 한다.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 실천을 확대하고자 한다. 질문 기반 교과 수업으로 일방적 지식 전달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질문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수업을 상시 운영하고자 한다. 교과 및 융합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적 학습 태도를 가지고, 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탐구 질문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전개한다. 학생이 주어진 교육과정을 넘어 자신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경험하는 학생 생활 교육과정 운영으로 질문으로 수업을 설계·실행·공유·성찰하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그 과정을 성장·지원 중심으로 평가 및 환류하고자 한다.

4. 질문 기반 수업 나눔 확산

수업 나눔 문화	교사와 학생 모두 성장하는 수업 나눔 문화 확산 및 우수 수업·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성 향상
질문 기반 문제 해결 프로그램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축제형 질문대회 및 가족 질문 캠프 실시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축제형 질문 대회를 운영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학생 생활 교육과정 및 1-1-1 프로젝

트 연계 등 수업 및 교육과정에 질문을 통해 탐구와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하는 '학생 질문 축제'를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대표(지도교사 1명, 학생 4명)가 참여하여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사제동행 질문 중심 탐구 활동을 통해 질문을 생성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탐구 계획 수립 및 학생 질문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사제동행 질문 대회'를 실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시·군대표 25팀(지도교사 1명, 학생 4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에 따라 질문을 생성하고 답을 찾아가는 질문 중심 탐구 활동을 설계·수행·공유·성찰하는 '사제동행 질문 대축제'의 장을 열고자 한다. 아울러, 질문하는 수업 나눔 문화 확산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하여 『질문이 넘치는 교실』 초등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 기반 수업 관련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초등 플랫폼

III.『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살기

우리는 인구, 기후, 인공지능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학습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더 먼 미래까지 살아가야 할 세대로 인식하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갈 수 있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로 교실수업혁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구미봉곡초등학교 『질문이 넘치는 교실』수업 운영>

참고문헌

-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 6.)
- 댄로스스타인·루스산타나지음/정혜승·정선영옮김(2017)한가지만바꾸기
- 정혜승·김소현·김지연·서수현·윤구희·한기덕(2020)학생이 질문하는 수업만들기

질문이 수업이 되려면 필요한 3가지

남지영(상운초등학교 교사)

I. 나는 질문을 삽하는가?

질문의 가치에 대해서 굳이 부족한 지식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기 보다 나는 내가 질문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질문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해 보았는지 나의 경험담을 풀고자 한다. 나는 질문 수업을 주제로 하는 연수를 웬만큼 찾아보았고 그중 **아이스크림원격 연수원 [수업을 바꾸자! 질문기반학습법]** 강좌의 내용이 우리 학급에 적용하기 적합하고 내가 가진 질문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비슷하여 질문 수업을 구상함에 있어 많이 참고하였다.

2023학년도 질문학습 운영

· 지도학년 : 6학년 · 학생수 : 4명 · 질문수업 운영 과목 : 국어, 사회, 수학, 창체

학습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4명의 수준차도 있음 · [학습전략검사] 읽기전략 부족: 2명(50%), 시간관리/집중전략 부족: 2명(50%)
학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지 않는 학생 2명 · 정답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학생 1명/ 따라 말하는 학생 1명 · 완성된 문장으로 말하기를 어려워 함 (2명) · 발표 경험이 없음(2명)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 본 경험이 없음(3명)

학습 단계*	질문하기	제시된 질문 주제(학습 주제)를 보고 질문 만들기
	선택하기	만든 질문 중 질문 선택하기
	해결하기	선택한 질문 해결하기
	공유하기	만든 질문과 해결 결과 공유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 되돌아보기

II. 질문을 잘 하려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질문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 직후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겠다고 했을 때 한국 기자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던 장면은 교육계를 넘어 한국 전체에 많은 생각거리를 남겼다. 그런데 나라면 질문할 수 있었을까? 나도 못 했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사전적 의미야 어찌 되었든 시답잖은 질문으로 분위기를 망치기보다 조용히 넘어가는 편을 택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혀왔다. **[수업을 바꾸자! 질문 기반 학습법]**(강사: 박현진) 연수 강좌 속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 박물관 체험학습 중 설명을 듣던 학생이 “질문이 있나?”라는 안내자의 말에 지금까지 했던 안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질문을 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저런 질문을...? 생각하던 차에, 질문을 기쁘게 받아들인 안내자의 진지하고 친절한 대답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질문을 하지도 않겠지만 했다 하더라

* 아이스크림원격연수원-강좌[수업을 바꾸자! 질문기반학습법]참고

도 ‘시간 관계상 다음에 생각해 보자!’ 하고 넘어가거나 한심한 눈총을 받은 교실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많던가. 어릴 적부터 질문의 종류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어떤 질문이라도 모두 수용되었던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질문의 활용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1. 교사의 인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든 수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이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반드시 교사의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학급은 6학년이 4명인 작은 학교의 학급이었다. 그중 1명은 수업 중에 말을 한마다 하지 않는 학생이었고, 1명은 항상 수업내용과 다른 질문을 하는 학생이었다. 말을 잘하는 2명 중 1명은 학습성취도가 높으나 정답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려 했고 나머지 1명은 이 친구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친구였다. 질문을 하지 않거나, 질문이 수업내용과 상관이 없더라도,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정답이 아닌 질문으로 어떠한 평가를 하지 않고 존중해주기에는 굉장히 인내가 필요했다. 실제로 해보면 어떤 질문이든 수용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 교사로서 당연히 해오던 많은 것들을 참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고요한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조급함과 말이 없어져야 했다.

2. 맞춤형 수업

4명의 학생과 하는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의 생각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언어적 요소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갖춘다면 수업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 아이스크림원격연수원-[수업을 바꾸자! 질문기반학습법]

했다. 그래서 질문 기반수업을 고민했고 1학기 초부터 질문 수업을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2017년도에 6학년과 함께 했던 질문 수업을 보충하여 3단계 질문 수업을 구상하여 시도하였다. 질문의 종류(사실적 질문, 해석적 질문, 적용적 질문)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질문을 통해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2023학년도 질문학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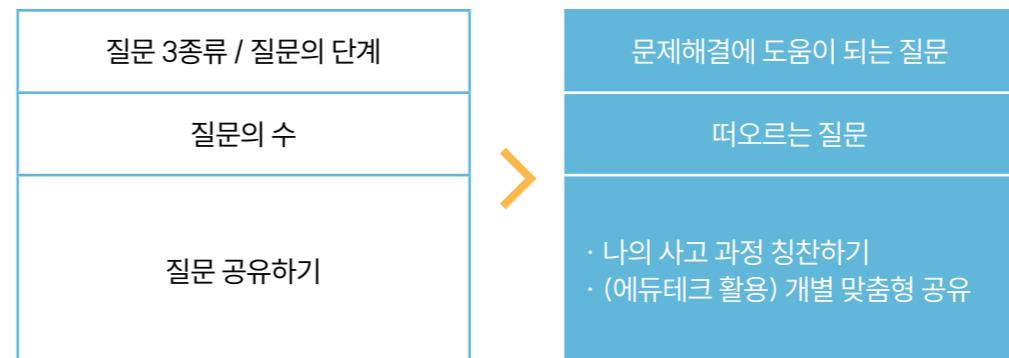
예) 국어질문수업-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 읽기

모둠별/개별 단계별 질문 만들기			단계별 활동하기
1단계	사실적 질문	질문 5개 이상	
2단계	해석적 질문	질문 3개 이상	질문을 공유하기 질문 선택하여 답해보기
3단계	적용적 질문	질문 1~2개	

결과는 대실패였다. 1학기 중반을 넘어서는 동안 3가지 질문의 종류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했고, 질문의 종류에 매달려 아이들이 국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질문은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주체적으로 학습 이끌어가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데 정작 아이들이 궁금한 것을 묻기도 전에 틀에 가둬버리는 잘못을 해버린 것 같았다. 학생들의 특성 및 학습 수준을 다시 고려하여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도록 질문하기 진입 벽을 낮추었다. 우선 질문의 종류는 신경 쓰지 말고 학습 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만 판단할 것, 그리고 질문의 수도 정해진 시간 안에 떠오는 만큼만 할 것,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했던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칭찬

하는 단계를 추가할 것 등으로 수정하였다.

질문 수업 수정



이후 질문과 해결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을 개별 특성에 맞춰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그림, 표, 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더니 말을 하지 않는 친구는 텍스트로 발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학급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하면 될 것 같다. 우리 학급의 경우 4명이라 개별 활동으로 주로 운영하였고, 개별 특성을 면밀히 살펴 적용할 수 있었지만 다인수 학급의 경우 모둠활동으로 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평균 수준을 파악하여 수업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수정된 질문 수업 단계

예) 국어질문수업-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의 뜻 알기

학습단계*

① 주제제시

관용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

② 질문만들기

선택한 질문
그림에 어떤 관용표현이 있나요?
질문 해결
누구 코에 붙여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물건이 너무 적을 때)
상다리가 부러지다
(상대 응석을 매우 (?) 전수 청찬
많이 차려놓다)
관용어

③ 질문선택기준 제시

수업 시간에 자신이 잘한 점 칭찬하기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
해서 뿌듯하고 질문도 잘 해서
기분이 좋다.

④ 선택하기/해결하기

⑤ 공유하기

⑥ 되돌아보기

3. 학생과 교사의 소통

2023학년도 질문 기반 학습을 구상하여 주로 국어 수업에 적용하였고, 사회, 수학, 창체 수업에 차시별로 진행하였다. 질문 기반 학습으로 실제로 운영하면 평소 하던 수업자료 준비의 부담은 없다. 하지만 어떻게 주제를 제시해야 학생들이 질문을 떠올릴 수 있을지 주제 선정 방식을 고민하고 학생들이 어떤 질문들을 떠올릴지 예상해 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의 수업방식과 많이 다른 형태로 운영되므로 교사의 많은 다짐과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 수업은 학생들이 주로 생각하고 만들고 이끌 어가는 수업이라 학생들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기 초 수업 방향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모든 수업이 그렇겠지만 특히 질문 기반 수업에서는 소통하는 분위기가 수업을 좌우한다. 서로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나누는 분위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의사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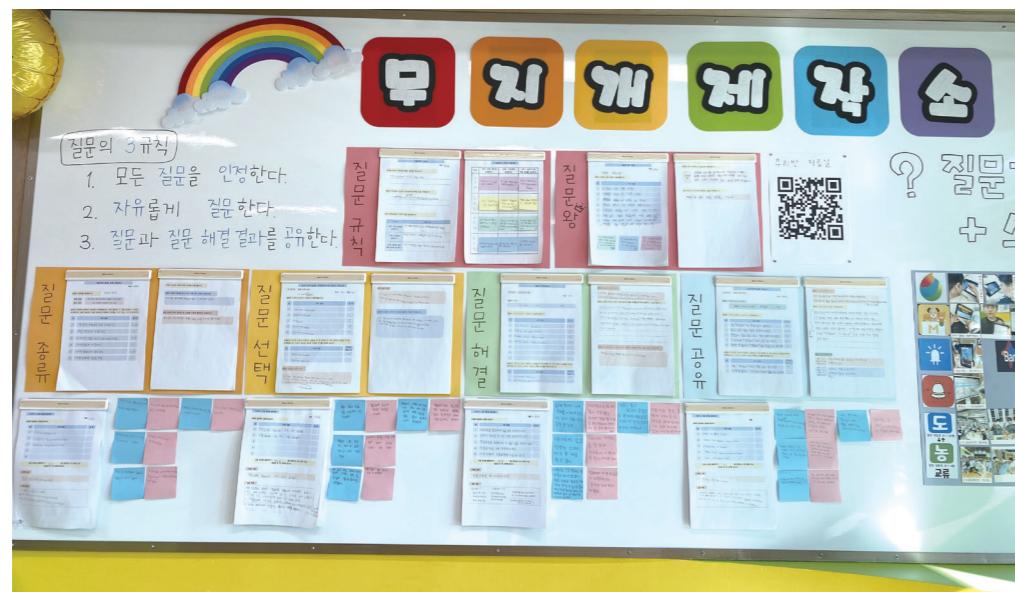
질문 기반 학습에 대해서 과목별 주제별 예시로 제시되는 후기글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초반에 진행되었던 질문 수업은 교과서 2차시 분량은 4차시에도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더디었고, 질문의 양이나 공유과정이 소개할 정도의 자료가 되지 못했다. 이후,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커진 뒤에는 글로 남기지 않고 바로 질문하여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 또한 제시 할 수 있는 자료가 남지 않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도였던 질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질문을 만들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질문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말을 안 하던 친구가 수업 중 발표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말하기 좋아하는 친

* 아이스크림원격연수원-강좌[수업을 바꾸자! 질문기반학습법]참고

구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며 좋아했다. 자신의 생각이 질문을 매개로 전달이 되고 수용이 되자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긍정적인 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교사가 말을 많이 하던 수업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해결하며 모르던 것을 배우는 경험을 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질문과 해결 과정을 통해 성취도를 알아볼 수 있었고 향상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고착된 수업의 형태를 바꿔볼 수 있었고 학생들을 더 면밀히 살펴 수업을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모든 과목과 차시에 질문 수업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질문 기반 학습을 통해 체험한 많은 변화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질문수업 활동지 게시판

생각을 다지는수업, 아하! 궁리 2024 중등 질문·탐구 수업

홍현정(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학사)

I. 생각을 다지는 수업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4년 2월 도내 중·고등학교에 수업의 큰 틀을 질문·탐구 수업이라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2022개정 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2025년을 앞두고,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및 시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실 수업의 상(象)을 설정한 것이다. 수업 형태나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 질문·탐구 수업으로 한정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2024년 중등 질문·탐구 수업 추진 계획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1. 질문·탐구 수업→생각을 다지는 수업=아하! 궁리

표 어	생각을 다지는 수업, 아하! 궁리
-----	--------------------

- 질문 표출 이상으로 질문 이후의 탐구와 몰입을 중시하고, 기존 지식을 학생 자신의 암과 생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수업
- 궁리: '거경궁리(居敬窮理)'에서 나온 말, 사물을 깊이 연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얻음

개념

질문·탐구 수업

- 특정 교수학습 모형으로 정형화된 수업이 아님
- 학생의 질문이나 탐구가 일어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

경북의 중등 수업은 학생의 질문이나 탐구가 일어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지향한다. 즉, 교육학 이론에서 규정하는 탐구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특정 교수학습 모형이나 방법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열린 개념의 질문·탐구 수업은 '생각을 다지는 수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다지다'는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다', '기초나 터전 따위를 굳고 튼튼하게 하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이 학습을 바탕으로 결국 학습의 기초나 자신의 생각을 굳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수업이 경북 중등 수업의 상이다.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의문, 질문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그 질문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질문 표출 이후의 과정에 주목을 한 것이다. 이에 경북 중등 수업의 표어는 단순히 질문·탐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생각을 다지는'이라는 문구로 연결된다.

생각을 다지는 수업이란 곧 궁리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궁리는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이라는 일상적 의미도 갖고, '거경궁리(居敬窮理)', 사물을 깊이 연구한다는 성리학적 의미도 갖는다. 궁리란 학문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된 것이다. 궁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아하'하고 감탄하는 그 순간!, 그 신나고 기쁜 그 순간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생각을 다지는 수업, '아하! 궁리'라고 외치게 되는 수업이 경북 중등 수업의 표어가 된 것이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중용 20장

수업목표

■ 학생이 주체, 학생을 깊게, 학생에게 맞춤

-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 추구하는 인간상: '자기 주도적인 사람'
 - 추구하는 학습의 형태: '깊이 있는 학습', '학생 맞춤형 수업'

추진방향

- 배움에서 시작되는 질문
- 질문으로 깊어지는 생각
-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생/교사

[경북 중등 수업 추진 방향 설정의 기저]

- 중, 고등학생 학습 질문의 특성: 이전에 학습한 것(기존 지식)에서 기반하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단편적 정보 이상의 것이 많음
- 질문 생성의 궁극적 목적: 질문을 한 후에 이어지는, 문제 해결의 과정(탐구의 과정)을 통해 결국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글로벌 지식인 양성(시대적 흐름과 전통의 융합적 계승): 최신 교육 이론 및 교육 정책을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선조들의 교육(학문)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획득이 가능→글로벌 미래 지식인의 자질이자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교육)의 성격

[경북 중등 수업의 추진 방향]

- 학습(배움)에서 시작된 학생 본인의 질문이 깊이 있는 학습의 동기가 되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여 다른 영역으로까지 전이되는 참이해(진실로 아는 것)를 이끄는 수업

'배움, 질문, 생각' 요소의 추출 및 적용]

- 추출: 공부(學)의 5가지 과정을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慎思), 명변(明辯), 독행(篤行)'으로 본 '중용 20장'에서 차용함
- 적용: 경북형 교수학습-평가 방법 서식 / 경북 수업 실천 과제 구분의 기준

수업의 목표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습의 형태를, 경북 중등 질문탐구 수업 운영 계획을 추진하는 방법은 종용 20장에서 차용하였다.

II. 추진 과제

학문의 과정을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이라고 본 옛 성현들의 생각 및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 '탐구형 수업' 등에 따라 '배움', '질문', '생각과 실천'이라는 3개의 용어가 추출된다. 박학은 배움, 심문은 질문, 신사, 명변, 독행은 생각과 실천에 대응된다.

이 3개의 용어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교사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연구와 연수', '수업', '평가와 공유'라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 즉 학습의 단계는 배움에서 시작하여 질문으로 깊어지고, 스스로 신중하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교사들의 과제 또한 이러한 세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한 까닭은, 항상 학생들과 함께하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교사의 노력 또한 학생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1. 배움에서 시작되는 연구와 연수

- 교사 성장을 위한 수업 나눔의 활성화
- 교원 학습 공동체의 연구 및 연수
 - 교과별 연구 연수, 수업 중심의 공동체로 재조직
 - 2022개정 교육과정 및 개념기반, 질문탐구 수업 공유
 - 사제동행 수업 나눔 축제

2. 질문으로 깊어지는 수업

- 경북형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작성(4월, 9월 정보공시)
- 개념 기반, 질문·탐구 수업 공개(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 연계)
- 교내 질문·탐구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생각하고 실천하는 평가와 공유

- 학생 생각을 이끄는 수업 연계 평가
 - 경북 학생 질문·탐구 한마당
 - (권역별)중학생 질문·탐구 : '궁금한마당'(12월)
 - (도) 고등학생 질문·탐구 : '궁리한마당'(8월)
 - 질문·탐구 수업 모형 개발과 확산
 - 선도, 탐구, 연구학교
 - 수업 사례집 발간(연말)
- ※ 책임교육학년(중1)의 학력 증진: 기본 탄탄 온중학교 2.0

1. 연구와 연수

경북 중등 질문·탐구 수업을 위해 교사들의 연구와 연수를 활성화한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며 수업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공부보다 가장 직접적이며 현장 적용성이 높은 연구이다. 이를 인정하여 2024년에 처음으로 경북에서는 수업전문가 활동 교사의 공개 수업(연구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교사의 직무연수 시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중등 교원 학습 공동체가 교과 중심으로 재조직하게 되는 것, 이전 연도와 다른, 큰 변

화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 및 개념기반, 질문·탐구 수업 등에 대한 연구와 연수를 교과 중심으로 할 때, 교과가 다양한 공동체에 비하여 연구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일 것이며, 연수의 결과를 교실 상황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매년 8월 중순에 진행되어 온 수업 나눔 축제(2022년까지는 '수업 나눔 한마당'이라는 이름이었음)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운영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교과별 수업 방법을 공유해 온 잔치였던 기준의 수업 나눔 축제에서는 학생이 없는 교실이나 부스에서 교사가 수업을 시연하거나 수업 방법을 설명했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 학생들과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또한 교과 학습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수업

경북 중등 질문·탐구 수업에서 가장 특기할 부분은 경북형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의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형 서식은 중용이라는 고전에서 학문의 과정을 현대적으로 차용한 전국 최초의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서식이다.

개정 정보공시에 따라 2024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는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대한 파일을 올리게 된다. 진도표라고 불리던 기존의 교과 진도 운영계획이 사라지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를 강조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의 권장 또는 표준 서식을 안내하게 되었고, 경북은 이 서식의 구획 원리를 경북 중등 질문·탐구 수업의 방향이 된 3개의 핵심어(배움, 질문, 생각)에 두었다.

경북형 서식에서는 학습요소이자 평가요소가 될 것을 '배움'이라고 보고, 교수학습의

가장 앞에 두었다. 학생이 질문을 품게 하는 수업 방식을 '질문'이라고 하여 '수업 방법' 칸을 설정하였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질문, 탐구한 뒤 자신의 생각을 다지게 되는 단계를 '생각'이라고 하여 '평가 방법' 칸을 두었다.

평가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하면서 수업을 설계하는 백워드(backward)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나가려는 관점, 학생의 드러난 활동만이 아니라 학생의 머리 속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생각, 수업 이후에도 전이되는 참이해 등에 대한 관심, 핵심 아이디어 중심,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 등에 대한 최근의 교육적 인식이 반영되었다.

시기	시수/ 누계	단원명 (평가 영역)	교육과정 성취기준	생각을 다지는 질문·탐구 수업			
				[배움]	[질문]	[생각]	[연계]
월	/			학습(평가) 요소	수업 방법	평가 방법	수업·평가 연계 주안점

경북형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서식의 일부

이 서식은 결국 학생들의 질문이 일어나고 탐구하는 수업을 몇몇 소수의 교사들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의 더 많은 교사들이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을 수립한 뒤, 학기별 1회 정도 시행해 온 학부모 초청 수업 공개의 날, 질문·탐구 수업을 공개하게 된다.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는 질문·탐구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질문·탐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과 수업 이외의 시공간에서도 질문, 탐구, 몰입, 토론 등이 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3. 평가와 공유

경북형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서도 드러나듯, 2024년 각 학교에서는 수업과 연계된 평가, 학생들의 생각과 성찰을 이끄는 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단순 암기한 것을 확인하는 평가가 아니라, 학습한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공유 활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질문·탐구 한마당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경북 고등학생 질문·탐구 '궁리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탐구 '궁리한마당' 운영 방식 신청한 고등학생들이 팀별(3~5명)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 질문을 생성함 ②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탐구, 조사,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침 ③ 질문 및 해결의 과정을 참가자 모두와 공유함(8월 예정) <p>※ <u>도 전체 행사로</u> 추후 세부계획 공문 발송 예정</p>
경북 중학생 질문·탐구 '궁금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리한마당'과 유사한 방식의 운영 ■ 다소 단순한 수준의 의문인 궁금증까지도 깊이 있는 학습의 동기로 보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함(12월 예정) <p>※ 권역별 행사로 추후 세부계획 공문 발송 예정</p>

질문·탐구 수업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선도 탐구, 연구 학교들의 역할 또한 기대가 크다. 교육부 선정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는 전국 중등 중 경북의 중등이 두 번째로 많은 학교수가 선정되었다. IB형 수업 탐구학교는 경북 자체에서 계획, 공모한 사업인데 중등 21개교나 선정될 만큼 도내 학교들의 열의가 매우 높다.

'질문' 관련 선도, 탐구, 연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교내 활동(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의 활동)에서 학생 주도의 질문·탐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 질문·탐구 관련 수업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5개교 IB형 수업 탐구학교: 21개교 질문이 넘치는 교실 연구학교: 1개교
수업 사례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의 우수 질문·탐구 수업 사례 수합 ■ 교과별, 학교급별 우수 수업 사례집 발간 후 공유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온중학교^{*} 2.0'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실천 과제이다. '온중학교 2.0'은 책임교육학년인 중1학생들 중 희망 학생들과 해당 학교 소속 교사가 함께 활동하는 학습동아리를 지칭한다.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본인의 수준을 진단받은 후, 그 수준에 따라 EBS 중학 단추 <https://ai.ebs.co.kr/mid/>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면, 교사가 이 학생의 학습을 관찰하고 지원을하게 될 것이다. 즉, AI(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함께 하여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동기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온중학교 2.0'은 평가 결과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지는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모든 학생의 기본 탄탄'을 추구한다.

* '온중학교'는 경북교육청 주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 말까지 매일(월~목) 밤 9시에 진행한 유튜기반 실시간 맞춤형 수학 원격 수업이다. 2023년 온중학교 영상을 시청하며 학습을 하는 학생들(5명 내외)과 이들의 학습이력을 일지에 기록하며 학습을 지원한 교사 1인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1년 동안 활동하였다.

III. 더 많은 과제들

경북의 중·고등학교에서 실천할 과제들은 위에서 서술한 것들 이상이다. '아하! 궁리' 수업은 학교별 특색 과제라는 형태로 더 많이 꽂힐 것으로 기대한다. 꽂이 아직 채 피지 않아서 그 색과 모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 중 일부를 아래에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 [학기별 1회 이상의 질문·탐구 수업 실천] 교내 전체 교사가 학생 질문·탐구 수업을 1회 이상 실행
- [교내 자율장학을 통한 실천] 질문·탐구 수업 실천 계획 포함
- [수업전문가의 수업 참관] 연 1회 이상 권장
- [교내 학습공동체] 질문·탐구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 [학교 자율시간(중학교) 및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활동(고등학교) 운영 계획] 학교 특색 과제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질문, 탐구가 중심이 되는 활동 계획(2,3월에 수립)
- [창의적체험활동 질문·탐구 학생동아리] 창설(3월)
- [질문하는 교정] 교내 곳곳에서 질문 생성, 생성한 질문을 공유하는 교육환경 조성
- [탐구, 몰입하는 교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탐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학생 규칙, 교실 규칙 등의 제정과 운영
- [토론하는 동아리실] 개별 학생, 모둠별 질문들의 해결을 위한 토론
- [자기 표현과 피드백이 흐르는 학교]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표현하고, 답에 대한 교사 및 학생 상호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교내의 시·공간 확보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질문·탐구 수업 관련 교내 요청 연수]

선택 과제
(예시)

참고문헌

- 2024학년도 정보공시 개정사항 및 도내 중등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작성 안내(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4878(2024. 2. 26.))
- 2024학년도 중등 질문·탐구 수업 추진 계획(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5339(2024. 2. 28.))
- 2024 중등 현장 맞춤형 장학 매뉴얼(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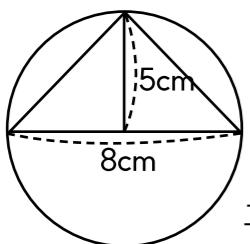
질문하는 힘! 탐구하는 자세!

박지은(북삼고등학교 수석교사)

I. 왜 질문하고 탐구해야 할까?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풀리처상 수상 시인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휘파람 부는 사람』에 수록된 내용이다. 시인이 산문집에서 소개한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기 위해 질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구하며 알아가는 것!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3월 신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 후, 첫 시간이었다. 수업 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하고 싶다고 어떤 학생이 찾아왔다. 너무 반가웠다. 그러나 이내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웠다. '선생님... ㄱ, ㄷ, ㅂ+ㄴ, ㅁ→ㄷ, ㅇ, ㅁ 이 규칙 아시죠? 이 규칙 이름이 뭐죠? 그리고 추가되는 규칙은 무엇이 있나요?'가 학생이 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각각의 음운의 조음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학생은 모른다고 했다. 음운의 조음 방법을 모르니 'ㄱ, ㄷ, ㅂ+ㄴ, ㅁ→ㅇ, ㄷ, ㅁ'이 '비음화'에 대한 규칙을 도식화한 것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다. 이후 다시 물었다. 'ㄱ,

ㄷ, ㅂ+ㄴ, ㅁ→ㄷ, ㅇ, ㅁ'이 규칙에서 왜 'ㄱ, ㄷ, ㅂ+ㄴ, ㅁ→ㅇ, ㄷ, ㅁ'이 아니라 'ㄷ, ㅇ, ㅁ'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암기하기 편해서라고 대답했다. 'ㄱ'이 비음에 의해 'ㅇ'으로 바뀌고,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국어 수업을 하며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적용학습을 하자고 했더니 그냥 암기하겠다고 답하였다. 다음 시간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더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20이라고 답한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밑변×높이÷2'이니까 20이라고 대답했다. 내가 수업 중 그린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칙만을 무작정 암기하면 본질을 볼 수가 없다고 했더니, 몇몇의 학생들이 문제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고 물으니 지름이 8인데 반지름이 어떻게 5가 되냐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암기하지 말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후, 국어의 규범에 대한 수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윤성널' 혹은 '윤서결'로 학생들이 발음했다. 왜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발음하는지 물었더니 TV에서 그렇게 발음했다고 한다. 그래서 표준발음법을 통해 알아보자라고 했더니, 규정을 찾아 '제13항'에 따라 '윤서결'로 발음한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제29항'에 따라 'ㄴ첨가' 후, '제18항'을 적용하여 '윤성널'로 발음한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첫 수업에 교실이 시끌시끌하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며 서로 우긴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지켜보다가 또 물었다. 그런데 정말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맞냐고? 그랬더니 미간에 주름을 잡

으며 고민을 한다. 한참 후, 어떤 학생이 '선생님, 대통령 이름에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있나요?', 또 어떤 학생은 '대통령 이름이 파생어 및 합성어인가요?'라고 묻는다. 그러더니 다른 학생이 '표준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이름이 표준어인가요?'라고 묻는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라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표준어 사정 원칙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이름 어떻게 발음할까요?'에서 시작한 수업이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연음, 음운 첨가, 비음화,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파생어, 합성어,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탐구하며 답을 찾아간다. 출석을 확인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질문과 탐구로만 이루어졌다. 첫 수업 후, 학생들의 반응이 '선생님 수업은 특별한 것 같아요'였다. 왜냐고 물으니 공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 많은 것을 배운 기분이라고 한다.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탐구하니 배움이 즐겁다는 것을 학생들이 은연중에 알아가는 것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질문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진다는 것이다. '깊이 있는 학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교사는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는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II.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은 어떻게 디자인할까?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가 교과 성취기준을 통해 어떠한 수업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수업에서의

학생들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국어과 진로 선택 과목 중 '심화 국어' 1단원 (1)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단원을 재구성하였다.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업 디자인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1)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12심국01-01]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업하여 분석한다.

[12심국01-02]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12심국01-03]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2) 학습 요소

정보의 유형과 성격,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기, 정보 조직하기(청중, 의사소통 목적), 정보 표현·전달하기

(3) 성취기준 해설

[12심국01-02] 이 성취 기준은 청자나 독자의 관심, 요구, 수준 등을 분석하는 방법,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른 정보 조직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조직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의사소통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12심국01-03] 이 성취 기준은 계획하기 단계 이후 실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거나 청

중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 표현과 전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말의 구체적인 표현 전략과 전달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사실적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관점으로 정보를 과장·축소·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표현이 장황하거나 모호하여 청자나 독자의 이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표현의 객관성, 간명성, 논리성에 유의하며 정보 전달에 적합한 언어 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 정보의 수집과 분석 →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 →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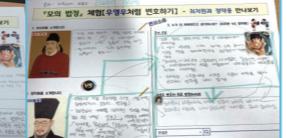
위 성취기준을 교수·학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떤 제재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의 법정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학습 요소를 가르칠 뿐 아니라 인성교육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들을 선정하여 디자인하였다.

구분	교수-학습 내용	질문	성취 기준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치원과 정약용 조사하기 ■ 최치원과 정약용 관련 자료 수집 ■ 조사한 자료 내용 - 증거 수집[모둠별 토의] - 인물의 생애, 작품,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 조사하기 	최치원과 정약용 증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나요?	[12심국 01-01]

구분	교수-학습 내용	질문	성취 기준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 조직 ■ 최후 변론서 작성하기 ■ 최후 변론서 발표하기 ■ 지도교사 피드백[최종 판결]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면 좋을까요?	[12심국01-02] [12심국01-03]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치원과 정약용 작품 조사하기 ■ 최치원의 「촉규화」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 바라보기 ■ 정약용의 「고시 8」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 바라보기 -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주제로 한 작품 ■ 지도교사 피드백하기 	최치원과 정약용 작품의 특징을 생애와 연결 지어 살펴보아요.	[12심국01-01] [12심국01-03]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작품 조사하기[「고시 8」 엮어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작품: 「가렴주구」를 주제로 한 한시 [탐진촌요, 습수요, 산민, 고시7, 농가탄, 착빙행, 사리화, 영산가고] ■ 공개 수배 전단지 작성하기 	공개 수배할 대상은 누구이며, 죄목은 무엇인가요?	[12심국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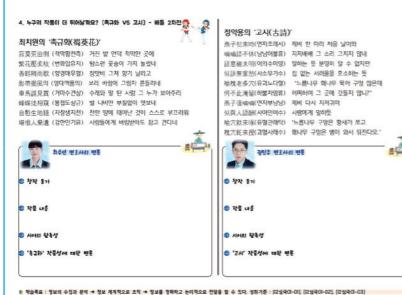
구분	교수-학습 내용	질문	성취 기준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분석한 작품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가고 둘 남기 	왜 「가렴주구」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을까요?	[12심국01-02]
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작품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발표 때마다 교사 피드백 		[12심국01-03]
7차시	<p>[온고지신(溫故知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조사하기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의 한계점 찾고, 새로운 법안 발의 ■ 작성한 글 단톡에 올리기[개별 활동] 	지금 이 시대의 탐관오리는 누구? 처벌하기 위한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2심국01-01] [12심국01-02] [12심국01-03]
8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약용 「파리를 조문하는 글」 함께 읽고, 우리 반 최강 질문 선정하여 이야기 나누기 	정약용과 탐관오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2심국01-01]
9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약용의 『목민심서』 읽고, 자신만의 『목민심서』 쓰기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12심국01-01] [12심국01-02] [12심국01-03]
10차시			

III.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의 모습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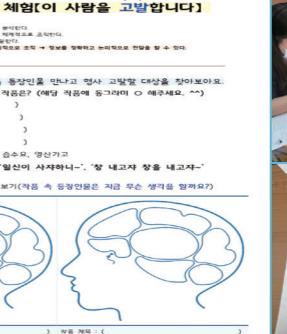
차시	수업 자료	수업 장면
1		
2		

수업의 첫 질문은 열린 질문이면 좋다.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을 때,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것을 내용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는 경우,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예)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하고 전달하는 직업 중, 법조인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수업을 연결 지어 진행하였다.

3		
---	---	--

최치원과 정약용의 대변인이 되어 조사한 내용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 후, 최치원과 정약용의 대표 작품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였다. 이후, 학습한 내용을 직접 교사가 되어 학우들에게 설명하게 하였다. 이때 교사의 강요가 아닌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학생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한다.

차시	수업 자료	수업 장면
4		
5		

정약용의 '고시8'을 통해 관리들의 횡포에 대해 학습한 후, 엮어 읽을 작품을 안내한다. 이 프로젝트 수업의 큰 틀은 '모의 법정'이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으로는 고발 대상 찾기이다. 모둠별 작품 속 등장인물 중, 고발 대상을 찾아 직접 공개 수배 전단지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작품을 반영론적 관점에 따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둠별로 각기 다른 작품을 분석하였기에, 다른 모둠의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때는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를 '둘 가고 둘 남기' 활동으로 진행한다. 두 명의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배운 내용을, 원 모둠으로 돌아가 남아서 안내하였던 두 명의 모둠 친구에게 꼼꼼하게 설명하며 나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다양한 작품을 짧은 시간 안에 학습 할 수 있다. 이후, 학생들은 유사한 작품을 스스로 찾아 감상한다.

차시	수업 자료	수업 장면
6		

학생들이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즐거워하면서 불안해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정확하게 공부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 반드시 교사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교사는 모둠 활동 중에도 그리고 모둠 활동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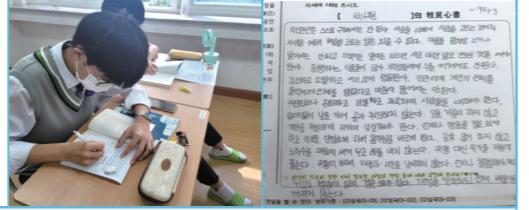
7	
---	--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고전을 배우는 이유일 것이다. 고전을 통해 현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 고전 속에서 등장했던 뇌물 수수 등이 지금의 어떠한 법과 연관 있는지 찾아보고,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어떠한 장점과 한계점이 있는지 스스로 학습하게 한 후, 한계점에 대해 수정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였다.

차시	수업 자료	수업 장면
8		



어떠한 관리자, 리더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 토론하기 위해 정약용의 '파리를 조문하는 글'을 읽고 질문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우선, 사실적 질문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후 적용, 상상, 심화 질문을 통해 깊이 있게 글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적용, 상상, 심화 질문을 각자 만들고 친구들의 질문과 비교하면서 좋은 질문을 선정한다. 반별 최강 질문을 선정(단톡 및 패들렛 등을 활용)하여 그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답하도록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사의 특별한 안내 없이도 학생들은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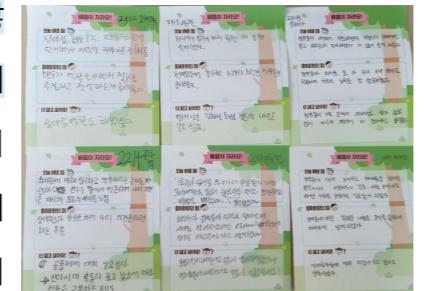
차시	수업 자료	수업 장면
9	 <p>교과서와 함께 책장을 찾고 책장을 찾는 학생들입니다. 책장을 찾는 학생들은 책장을 찾을 때마다 책장을 찾는 학생에게 책장을 찾았습니다.</p>	 <p>교과서와 함께 책장을 찾고 책장을 찾는 학생들입니다. 책장을 찾는 학생들은 책장을 찾을 때마다 책장을 찾는 학생에게 책장을 찾았습니다.</p>
10	 <p>교과서와 함께 책장을 찾고 책장을 찾는 학생들입니다. 책장을 찾는 학생들은 책장을 찾을 때마다 책장을 찾는 학생에게 책장을 찾았습니다.</p>	 <p>교과서와 함께 책장을 찾고 책장을 찾는 학생들입니다. 책장을 찾는 학생들은 책장을 찾을 때마다 책장을 찾는 학생에게 책장을 찾았습니다.</p>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 단계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연관지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었다. ‘목민심서’를 읽고, 읽은 부분까지를 참고하여 매시간 나만의 ‘목민심서’ 쓰기 활동을 하였다. 읽은 내용 중, 인상 깊었던 구절 및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목민심서’를 쓰게 하면 학생들이 더 신중하게 글을 읽는다. 속독보다 정독하면서 정약용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 함께 해 보실래요?

Q. 수업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나요?

우선,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더 많은 점을 궁금해 하고, 자신이 학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마무리 되면 수업 후, 배운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최치원과 정약용에 대해 스스로 학습한 후, 인물들의 작품에 대해, 내가 변호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 혹은 다른 학자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였어요. 어떤 학생은 ‘토황소격문’을 찾아보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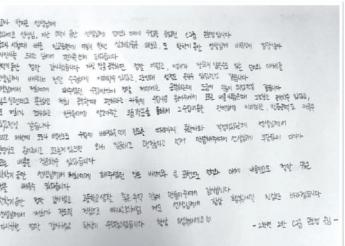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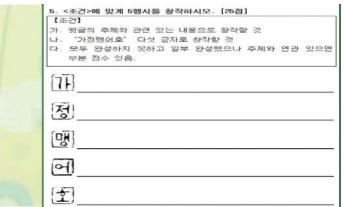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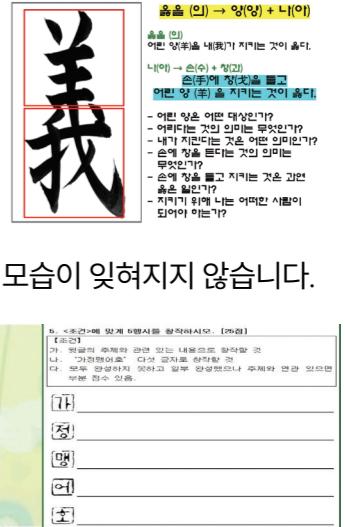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해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구요. 암기하는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의 법정’ 프로젝트 수업 후, ‘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진지하게 임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과 평가가 별개가 아님을 학생들이 느끼고 더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서 단답형이거나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게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의 ‘파리를 조문하는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도록 했어요. 교사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은 글쓴이의 의도와 글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합니다. 작품의 주제와 연관되는 내용으로 다행히 창작하기 문제를 출제하였을 때 학생들이 시험 후, 너무 즐겁게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구요. 평가가 즐겁다니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수업 후, 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에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발표력이 향상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우리 함께 질문하는 힘과 탐구하는 자세를 기르는 수업 해 봐요. 😊



Part.3

함께하는 현장

가족 질문왕을 찾아라! · 59

안재용(호서남초등학교 4학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질문·탐구대축제 · 63

박명진(경산고등학교 3학년)



가족 질문왕을 찾아라

: 2023 아빠와 함께 캠프를 다녀와서

안재용(호서남초등학교 4학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재용아 오늘 하루 어땠어? 잘 보냈어?', '학교에서 뭐 배웠어?', '재밌는 일이 있었어?', '숙제는 어떤 게 있어?', '친구랑 잘 놀고 있어?' 이런 질문들을 듣는다. '응, 잘 보냈어.', '괜찮았어.',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한다. 나도 집에 오면 '엄마는 어디있어?', '간식은 뭐 먹을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평소에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경주에 캠프 가자고 했다. '무슨 캠프?' 했더니 '가족 질문왕을 찾아라 2023 아빠와 함께 캠프'라고 하였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 경주와 신라에 관해 본 적이 있어서 어떤 캠프인지 호기심이 생겼다.

'책에서 본 신라시대 덕만 공주였던 선덕 여왕과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 아빠와 함께 경주로 출발했다.



입소식 때, 앞에 있는 분이 오늘 체험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
다. 가장 좋은 질문을 하는 팀을 선발하여 칭찬도 해준다고 하였다.
3개팀을 정해서 체험을 했는데, 문무왕 팀, 진흥왕 팀, 선덕왕 팀 중에서
우리는 문무왕 팀이었다. 우리 팀은 처음에 경주 답사 투어를 하면서 화
랑에 대해서 배우고 화랑 체험을 하였다.



화랑체험을 하고 첨성대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첨성대 입구가 특이했
다. 보통 입구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첨성대 입구는 내 키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 '첨성대 입구는 왜 저기 위에 있을까?' 궁금했다.
교촌마을, 계림숲, 월정교를 걸으면서 책으로만 알던 경주를 실제로 접
해보니 신라 시대로 돌아가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였다.

날씨가 추워져서
옛날 사람처럼
양손을 소매에
넣어보았다. 히힛^^
수공평장이라고 한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질문왕 찾기를 했다. 낮에 첨
성대를 보면서 궁금했던 입구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적었다. '첨성대
입구가 저렇게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이에 적어서 제출했
다. 아쉽게도 다른 아이들 질문이 더 좋아서 그런지 나는 질문왕이 되지

는 못했다. 이번 '질문왕 캠프'를 통해서 '질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 궁금한 것과 호기심을 해결해 주며,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한 묻는 사람과 대답해 주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질문·탐구 대축제

박명진(경산고등학교 3학년)



저는 경산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8명의 팀을 꾸려 '2023 경상북도 고등학생 질문·탐구 대축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생생한 경험과, 제 나름의 느낀 것들이 있어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제 경험 및 생각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알아볼까요?

1.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질문·탐구 대축제…

사실 저는 이번 행사는 참가 여부를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GS 2.6 팀의 자랑스러운 팀장 이현서 학생이 제게 함께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고, 저는 흔쾌히 승낙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질문·탐구 대축제를 위해 한 준비

행사의 전체 진행 과정은 제시어 뽑기 - 질문 선정 및 발표 준비 - 3분 발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진 않았습니다.(사실 그럴 수도 없구요..) 평소 친구들과 나누었던 국어 비문학 지문들을 주제로 한 토론들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3. 생생한 질문·탐구 대축제 경험담

실제 행사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아서 놀랐던 거 같습니다. 100명을 넘는 인원이 행사장에 있었고,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팀들 중 저희팀이 눈에 뛸 수 있을까 걱정도 좀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 팀이 '교육' 제시어를 뽑게 된 후, 처음에는 할 게 뭐가 있을까 다소 막막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교육 관련 이슈를 이것 저것 대화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살짝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친구들이 제시한 방향성을 확장하고, 정리한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생활기록부에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탐구보고서'란 이름으로 비슷한 활동을 진행하는 현실을 이야기하였고, 다른 친구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도 학교들은 또 다른 형태의 탐구보고서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논의를 좀 더 확장하여, '강압적인 제도로써 교육 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해 발표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동의하여 이번 발표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 주제를 선정한 과정은 이번 행사의 목표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과 부합한 것 같아 지금도 가장 뿌듯한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준비를 하면서는 3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잘 지키려고 전략적으로 대본을 구성했습니다. 실은 제가 발표할 때 대본을 잘 쓰지 않는 편인데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대본을 쓰면 말을 더 더듬거리게 되더라구요.) 이번 발표는 시간제한도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이 모인 자리인 만큼 대본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팀원들과 함께 대본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실제 발표를 할 때는 정말 오랜만에 긴장감을 좀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 체질인 건지 발표할 때 오는 긴장감이 좀 적은 편인데도,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니 긴장감이 꽤 커던 거 같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고 내려와서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그 과정과, 대상 수상팀에 저희 팀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 짜릿함도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거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생들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학생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이 성장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4. 질문·탐구 대축제의 후기

위에서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갖춰야 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역량은 바로 '자문(自問)의 힘'인데요. 제가 스스로 정의하는 '자문의 힘'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이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자문의 힘이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학습의 태도를 넘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자문의 힘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학교 수업과 내신 대비, 수능 공부에 매진하기에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점은 공부, 즉 학습의 과정 자체가 이 자문의 힘을 기르기 위해 아주 좋은 재료라는 점입니다.

학교 수업을 예시로 든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단순히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론이 왜 필요했을지, 이 이론이 가진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최신의 이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 공부를 예로 든다면, 국어 모의고사 지문을 읽으며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 글에 소개된 이론, 현상 등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면서 왜 이런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정리해 나가며 자문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번 행사만으로 학습의 올바른 방향성을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공부를 해오며 느낀 것들과 요즘 공부를 하며 느낀 바로는 결국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가 하는 학습의 과정에도 쓰일 수 있고,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늘 궁금해 하는 것이 많죠. 이건 무엇인지 이건 어디에

쓰는지 등 아이들의 일상은 물음표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머릿속에 다양한 물음표를 띄우고, 느낌표로 바꿔나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 경상북도 고등학생 질문·탐구 대축제 참여 사진

온방울

2024년 봄호
Vol.05

발행일	2024. 3.
발간등록번호	2024-12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정책혁신과장 김현광
편집주간	정책혁신과 장학관 홍성중
편집담당	정책혁신과 주무관 박지현
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TEL. 054-805-3107 / FAX. 054-805-3149
홈페이지	http://www.gbe.kr
디자인인쇄	라이프낫(Lifeneat)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